

윤완철

본회 연구위원, 본지 편집인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

## 세계관 기행 7장

집과 일상을 떠나 여행할 때면 잠시나마 타성을 벗어나서인지 새삼스레 주변 문화와 이웃들의 세계관이 감각되어진다. 그것은 오랫동안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사람들의 세계관이라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바로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들과 다투거나 함께 웃으면서 우리는 새삼 자기를 발견하고 세계관적 정리를 할 기회를 얻는다. 이번 여름 며칠간의 휴가여행도 예외가 아니었다.

### 1. '우리'의 도덕

우리 가족은 동물성 보다는 식물성에 속하는 편이다. 그래도 금년 여름엔 반드시 가족을 데리고 피서 시늉은 내야겠다고 베풀던 차에, 가까운 친구가 자기 회사에서 어느 해수욕장에 숙박 시설을 계약 임대했으니 같이 가자고 했다. 덕분에 어지간히 무거운 엉덩이를 추스려 떠나게 된 것이었다.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주차비 이천원을 받고 들여 보낸다. 예약된 숙소에는 이미 차가 가득 차서 할 수 없이 먼 길가에 한 자리 빈 곳을 용케 잡아 주차하려 하는데 어디선가 젊은 총각 하나가 나타난다. 자기네 업소

에서 쓰는 곳이니 비켜 달라는 것이다. 내가 그 집문이나 담을 막은 것도 아니고 길이 그 집 땅도 아닐 터였다. 이미 입구에서 주차비도 내고 들어왔는데 정작 제대로 주차 시설도 없는데다 그 안에서 또 뒷세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나는 내가 법에 비추어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는 연고에 근거하여 자기가 ‘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규범감각의 문제였다. 아무리 싸워도 그 청년은 이게 왜 법적인 문제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었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에 서비스 하겠다는 것도 정성이라면 정성인 것이고 기실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 중 아닌가? 그러나 일단 그 해수욕장에 손님이 온 후에야 자기 집 손님이 되어도 되는 것인데, 소경 제달 잡기가 아닌가 증얼대며 차를 뺐다.

하릴 없이 우리 숙박소의 주차장에 돌아가 보니 이제는 아예 차가 차를 막고 서 있는 마당이라 우리도 뚝심종게 길 한쪽을 막고 세워 놓았다. 물론 방 번호를 써서 앞창에 꽂아 놓았다. 한시간쯤 후 숙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사람이 와서 차를 빼달라 했다. 나가 보니 어느 새 내 차 뒤에도 차들이 꼭 차, 모두 합쳐 대여섯대는 빼야 되는 압당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열쇠를 맡겨 놓거나 방 번호를 남겨 놓아 불과 10여분 만에 그 복잡한 장소에서 기적같이 차를 빼 내는 것이었다. 대책없이 해변으로 나가 버린 차주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 영 신기하였다. 늘 이렇기만 하다면.

그러나 필시 한 회사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서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이다. 좋게 말하면 공동체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봉당적인 우리 사회의 규범체계가 여기 엿보인다. 우리네 사회에서 ‘남’이 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없게 매너가 좋고, ‘남’에 대하여는 법도 소용없게 뻔뻔하게 해대는 사람이 너무 표준적이다. ‘우리됨’이 법이나 옳고 그름에 우선하는

사회. 그리고 보니 아까 길가의 주차장에서 연고를 따지던 청년이 권리를 따지던 나보다 우리 사회의 통념에 더 잘 맞는 이야기를 한 셈일 것이다. 어차피 안되는 싸움인 줄 알았길래 나도 돌아 나왔던 것 같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악이 여기서 생겨 나는가? 직장에서의 예절과 거리에서의 교통질서를 비교해 보자. 가족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또 민족에 대해서는 혹 연민하다가도 외국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더 나빠도 그 편을 들어 더 옹기만 나와 먼 사람들의 가슴을 찢는 데 굳은 마음들을 가졌다. 팔이 안으로 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하늘을 두려워 하는 큰 도가 없은지 오래여서 서로의 눈에 사람만 보이니 그 굵음이 더욱 자심한가 보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5:46)

## 2. 노털로만 자라다오

피서지 해변에서 밤을 보내기는 꼬박 15년만이였다. 해수욕장은 낮에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은 세월을 따라 잡지 못한 나의 우둔의 소치였다. 정작 깜깜한 밤이 되자 청춘남녀들이 해변으로 쏟아져 나와 모든 길가 점포와 포장마차를 채웠고, 그 사이로 난 길은 종로바닥 처럼 북적거리려 손을 잡지 않고는 어린애 잃어 버리기 꼭 마춤이었다. 그렇게 새벽까지 술마시고 춤을 추며 북적대다 낮에는 들어가 자고 저녁이 되면 또 나온다 한다. 해수욕객들과는 교대로 2부제 피서를 하는 셈인데 야간반이 더 많아 보였다. 놀라움이란 그 스스로 얼마간 유쾌한 것이기도 하므로 우리도 거리의 분위기를 따라 거닐었다. 오가는 젊은 여자들의 다리가 하나같이 곧게 뻗은 것이 새삼스럽고도 대견하여 잘 살고 볼 일이다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들었고, 큰 배를 거의 수직이 되도록 흔드는 바이킹이나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놀이 기계들을 보면서 자극과 속도에 탐닉하는 시대적 정신이 육화된 현장을 보는 듯한 감회도 가지었다. 오늘날 속도는 기뻐해야 하

고 겁이나 현기증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마냥 석연한 심정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듯 거리에 넘치는 심한 노출과 검은 머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소수민족이 된 것 같은 머리색깔 뿐이 아니었다. 옛된 남녀가 거개 쌍쌍인데 다 결혼하고 왔거나 따로 자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썩맥일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 거리에 유유히 어울리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노털'이었다. 그러나 어디 이것이 세대 차이로 치부할 일인가? 언제부터인가 도의와 풍속이 상대적이며 사람 정하기 나름이어서 정해진 추세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우리 사회에 들어 와 있다. 유교적 도덕 개념의 붕괴와 외국 문화의 침탈에 흩어진 정신의 파편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유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세대가 있었다. 이 세대를 향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 우리도 도덕은 사람들 정하고 따르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적응만을 모색하는 것인가?

중3인 큰 딸애가 길가 천막 디스코 텍을 훌깃 들여다 보더니 춤추는 한 여자의 옷차림이 너무 야하다고 질겁을 하는데, 따라서 혀를 차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것은 내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심일까? 딸 들어, 탁월하거나 프로답거나 강하거나 남다르게 되지 않아도 좋다. 부디 아빠 엄마 닮아 노털로만 자라다오.

### 3. 세뇌

숙소 바로 앞의 가건물이 나이트클럽이었다. 가건물이니 냉방설비가 없고 그러려니 창문을 다 열어 놓은 채로 귀청이 떨어져라 음악을 쏟아 내는 것이었다. 나이트 클럽안에 요를 간 것과 진배 없었다. 못자겠다 하면서도 종일 운전하고 수영하고 하던 나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얼핏 잠이 깨니 5시인데 아직도 쿵쿵거리며 질탕한 춤판 음악은 계속되고 있었다. 아내를 돌아다 보니 한 눈도 붙이지 못했다 한다. 춤추는 젊음이 열 스물 때 문에 온 동네 수백명이 피곤한 채 눈뜨고 곤죽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

보다 내 가족이 못 잤다는데 남자로서의 보호 본능 같은 것이 옥하여 아무도 모르게 불지르는 방법은 없나 하고 궁리가 얼핏 돌다 그만 ‘그래도 저것들 낳고 다 미역국은 자셨겠지’ 하며 돌아 누웠다. 무슨 세도일까? 바로 앞의 여관만 해도 소음 때문에 한밤 지나고 손님이 죄 도망가는 피해를 입는 판인데 저 나이트 클럽은 어째서 불도 안나고 매일 새벽 5시반까지 저릴 수 있는 것일까?

아침에 일어나니 이 아수라판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 짐을 꾸려 근처 풍경들을 보러 나섰다. 그런데 잠을 잤다면서도 여서 일곱 시간 내리 별수 없이 열려 있는 귀로 들어 온 음악의 힘은 무서운 것이었다. 운전을 하며 자꾸 귀에 뭔가 쟁쟁하다 싶으면 가사도 모르는 가요곡조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밤사이 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음악은 정녕 영혼의 하루 색깔을 결정하는 위력을 지녔다. 어디 가서 찬송가나 클래식이라도 한시간 들으면 해독이 되는 지.

그러므로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하여 가려들지 않고는 어떤 장사라도 마음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다. 소동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이란 이런 것일까? 얼마만한 자기성찰과 자기확립을 통하여 우리는 주변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면 또얼마만큼 자신의 영혼을 조율해야 하는 것일까? 머리 속의 이런저런 생각과는 무관하게 입은 또 절로 흥얼거린다. 듣기조차 질리면서도 증독된 양 자꾸 나오는 ‘똥따리 샤바-라 뽀 뽀 뽀 뽀...’

#### 4. 광복절과 진주성

진주성은 신기하게도 옛자리에 그대로 복원되어 있었다. 마침 광복절이었는데 임진왜란 초기 가장 중요한 대첩의 장소였던 진주성과 김시민장군의 유적비를 보니 감개가 깊었다. 축석루 자리에서는 논개의 영정과 남강가에서 왜장을 끌어 안고 몸을 던진 의암이란 바위를 볼 수 있었다. 이것

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진주는 관광 진주를 꿈꾸고 있었고 따라서 유적지의 관리 상태도 좋은 편이었다. 일본의 고위관리가 망언을 하고 역사의 진실이 일본에서 자꾸 흐려진다는 의심이 남아 있는 한 진주성과 축석루는 우리 국민에게는 과거를 되새겨야 할 중요한 장소로 남아 있으리라.

일본과의 역사는 도대체 얼마나 질게 우리 민족의 마음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일까? 어느 외국인이든 한국을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싫어 하면서도 어느새 그 정신을 받아 들인 것은 아닐까? 그리 하여 일본 식으로 일본에 대치하려는 것은 아닐까? 일본 또는 모든 외국을 내리 깔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그 자체로 옳다는 식의 그 온갖 국수주의적 주장들은 우리가 일본인에게 감염된 증좌가 아닐까?

상대의 좋은 정신과 세계관을 배우는 것은 함께 이기는 것이다. 상대의 나쁜 정신과 세계관에 감염되는 것은 가장 처참하게 지는 것이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선인이 두명이 되고, 악으로 이기려 하면 악인이 두명이 되니 적엔 이겨도 악엔 지는 것이다.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진주성 주변에 조성된 관광식당가를 찾았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간판들이 눈을 끌었다. 일식초밥집, 그 옆엔 로바다야끼.

## 5. 한국사람이 나쁜 것은

통영을 지나 거제도로, 해금강에 밤에 도착하여 다음날 아침 유람선을 탔다. 아침 8시반에서 9시 사이에 배가 뜨기 시작하여 손님이 치는 대로 계속 출발한다는 안내를 받고 8시반에 나가 표를 사고 기다려 45분 경 승선했다. 손님이 더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실 앞에 앉아 있던 육십 가까운 두 손님이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8시반에 출발이라고 해 놓고 왜 떠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시간안내를 간단하게 8시반 출발이라고만 써 놓은 안내문을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다. 해명이나 변경안내라도 있어야 하

지 않느냐는 것인데 연방 ‘나쁜 놈들이야’ 해가며 하도 열을 내니 선장과 안내원은 우리는 모른다, 또는 좋은 소리로 하지 왜 화를 내느냐 등의 대꾸만 하고 있었다. 급기야는 ‘우리 한국사람들 제일 나쁜 건...’ 하는 귀에 익은 화두까지 나왔다. 싸움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감정만 서로 돌고 있는 것이었다. 어디서나 우리네 싸우는 방법은 소모적이고 개선된 결과를 남기는 게 별로 없다.

어쨌든 9시에 배가 떠남으로써 소란은 일단 수습이 되었는데, 이번엔 역정을 내던 그 노신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다. 선실에는 물론 금연이라고 써 붙여 있었고 그도 그것을 모르지 않는 눈치였다. 내가 조용히 ‘저-’ 하고 말을 붙이려 하자 바로 담배를 들고 선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한편 발이 저리면서 한편으로 줯대를 세우고 (?) 있었던 것 같다. 말을 너무 잘 듣는 것은 비굴하다는 감정이 우리 사회의 묘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배는 해금강을 오른쪽에 두고 그 주변을 돌고 있었다. 그래서 손님이 쏠려 배가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오른 쪽 갑판으로는 나가지 말라는 선장의 방송이 있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 들썩 그리로 나가 구경하기 시작하여 선실 안에서는 바깥 풍경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또 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었다. 정말 우리는 말을 안 듣는 민족인 모양인가.

문제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한 눈길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누가 잘못을 따지면 그는 그 관대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래 잘못된 사람과 피장파장이 되어 버린다. 모두들 원만함에 경도되어, 사회를 바르게 하는 덕목이 처세에 필요한 덕목보다 아래에 있다. 무난하려는 이웃들의 처세를 이용하여 남의 인내로써 자기의 이익을 삼으려는 간사함이 생긴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다 담배를 참고 있으면 ‘다들 피우면 공기가 너무 나빠지겠지만, 모두들 안피우니까 나는 피워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식이다. 다들 갖길 주행을 삼가면 갖길이 훨씬 뚝려 녀살 좋게 갖길 주행을 감행하는 사람의 이익은 더욱 커진다. 질서란 죽쑤어 개준다는 속담이 생각나면 지켜질 수 없

는 것이다.

## 6. 외도

배는 거제도의 한 부속섬인 외도에 도착했다. 1970년에 어떤 사람이 이 섬의 땅을 모두 사서 가꾸기 시작하여 공원을 이루었다는 곳이다. 올라가 보니 아열대 식물원을 이루고 있었고 여기 저기 정원과 전망대를 꾸며 놓아 사람들이 다 좋아하며 사진들을 찍느라 부산했다. 흔히 앞면은 타일을 붙이고 뒷면은 판자로 때우고 비닐을 치는 것이 안타깝게도 성실치 못한 한국적인 (?) 화려함이다. 으리으리한 대문으로 들어가면 휴지통 대용인 찌그러진 양철통 옆에 무언가 국물이 새어나와 흘러 있고 비상구 앞엔 폐품이 쌓여 있는 것이 우리가 갖는 평균적 기대치이다. 그런데 여기는 식물을 가꾼 것은 물론이고 이리 저리 난 길에 박석을 깔 것이나 정원에 벤치와 조각등 장식품을 가져다 놓은 것 까지 모두 정성이 깃들어 있었다. 정원의 설계도 주인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였다. 몸비례가 안 맞는 가짜 조각상도 없었고 비닐치레도 보이지 않았다. 길을 막아놓은 것 까지 녹슨 철봉을 대강 엮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나무로 제대로 판을 만들어 막았다. 15년전 디즈니랜드를 처음 보고 그 '제대로 됨'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정신에 폭 죽었던 기가 이제야 조금 펴지는 듯 했다. 우리도 이제 이 수준이 되는구나.

그런데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칭찬이 아니었다. 어떻게 개인이 섬을 소유할 수 있느냐에서 시작하여, 얼마에 샀을까, 때돈 벌겠다, 어떤 놈이 이렇게 돈이 많누, 왕이 된 기분 내겠구나, 별 재미있는 건 없네 등등 이었다. 나도 외국에 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부실한 걸치레 습관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다면 그저 그런 이야기를 하며 오르 내렸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제대로 됨'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니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런 곳을 본받아 수준



있는 시설이 여기저기 더 생기는 이르다는 것이 된다. 본이 있어도 본을 못받는 수가 있고 뜻을 펼쳐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수가 많은 것이다.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되 그 펼친 뜻을 모르면, 그 안에서 걸맞는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본받아 같은 일을 하지도 못하니 개인이나 사회, 문화의 발전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신체를 주시고 자연과 환경과 이웃과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삶의 정원을 거닐고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주어진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고 감사하며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까? 혹 자격없는 방문객이 되어 인생이란 와 보니 재미없노라고 꾸념하며 주어진 짧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 중에 어느 새 그 섬에서 약속된 1시간 짜리 '인생'이 끝날 때가 되어 부두로 내려가는 길을 잡았다.

그 섬 주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이 척박한 섬을 사서 혹독한 바람에 감귤 농사를 실패한 후 전문가의 조언으로 20여년간 방풍림을 조성하는 집념 끝에 작년에야 개방했다고 한다. 그 인간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이만한 수준으로 격조있는 공원을 만들었다는데서 틀림없이 훈장없는 국가 유공자라는 생각이 든다. 내려오다 보니 사람들이 1억짜리라고 입에 입으로 전하며 호들갑을 떠는 화장실 건물이 있었다. 나도 멀리 배에서 보고 아 저기 참 멋있는 집이 있다 생각한 것이 알고 보니 화장실이었다. 호기심에 급한 일도 없이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거기에도 '양철통'은 없었다.

## 7. 땅끝의 집

떠나기 전 해금강 마을의 교회에 들렀다. 어제 밤 늦은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가 우연히 나이 오십이 다 된 듯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오를 의도를 다녀온 후 들르기로 약속한 것이다. 교회라야 그곳의 보통 집에 십자가를 세운 것이다. 해금강은 관광객을 상대로 한 식당을 주로 하여 80여가의 작은 어촌이다. 이런 곳에 어떻게 목사님이 계시나 무척 궁금하였는

데 듣고 보니 역시 사연이 깊은 교회였다. 목사님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늦게 신학을 하였다. 전도사 시절 관광차 무슨 강인줄 알고 해금강에 들렀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개척하신 지 8년이 되었다. 어촌이 다 그렇듯이 이곳도 미신이 우심하여 전도사님은 '채수없는 전도사 새끼'로 불리며 배척되었다. 두어 가구 함께 예배 보던 처소도 쫓겨 나 근처 공동묘지의 폐가로 만삭된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 2년을 살며 마을에 계속 전도하였다. 어찌 지리산 공비 생각이 나네.

그러다 섬기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도지 대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며 관광객들이 버린 오물을 청소하기 시작하였다. 눈길들이 달라졌고 말이 통하기 시작하였다. 바깥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 교회를 마련하고 다시 마을로 입성하게 되었다. 원래 전도사였는데 이제 강도사라 하니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요점만 추려 도사라 했고 높임말로 도사선생이라 불렀다. 처음 4년간 7명이었던 신자가 4년만에 1명 늘어나 8명이 되었는데 목사님은 800명이라고 센다. 마을에 어린이 6명을 600명으로 세어 놓고 주일학교를 정성껏 가르친 결과 그 중 두 명의 가족이 전도되는 등 최근 세 가구가 늘어 이제 1400명이라 하니 그 계산법이 미상불 능력이 있다.

그러면 천막을 지으시는지요? 내 물음에 놓어촌 목회는 섬기는 목회요 섬기는 목회는 일하는 목회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답이었다. 유자청과 멀치젓국을 만들고 미역을 말려 도회지 교회에 공급하는 한편, 목사님이 취미로 찍는 사진을 확대하여 관광객에 팔아 꾸려 나간다. 그런데 그냥 꾸려 나가는 게 아니었다. 교회 벽에 편지가 잔뜩 붙어 있어 들여다 보니, 이 초소형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가 14명이고 보조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12군데였다.

목사님은 게다가 시도 쓰신다. '별것 없는데' 웃으며 내어 놓으시는 시집 표지에 개척하러 도착한 날 지었다는 목회시가 있다. '작은/ 한/ 점이고 싶었습니다/ 굶거나/ 강한/ 점이기를 거부한 채/ 가늘고/ 연약해 보이

나/ 오래 지워지지 않는/ 확실한 점이고 싶었습니다/ 하여... / 작은/ 한/ 점이 되어/ 오늘도 땅 끝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서 몇 걸음 떼다가 아내가 탄식하였다.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서 자유롭게 되는 건데...' 내 맞장구는, '우린 모두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로프만 놓으면 바로 죽는 줄 알고.' 사회의 일상 속에 살더라도 믿음의 줄만 잡고 다른 로프는 다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 비록 땅 끝에 안 살아도 자유롭게 않을까? □